

썬엔지니어링 인공지능형 접착기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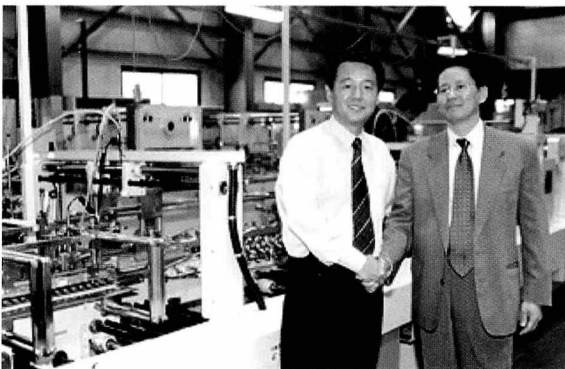
번째 제품을 납품했다. 이번에 발표된 접착기는 일본 썬엔지니어링(주)의 기술협조로 한국 썬엔지니어링(주)에 의해 생산 보급되며, 윈도우 2000 버전으로 출시되기는 한국이 최초이다.

DRAGON 1000 MC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형 접착기라는 점이다. 어떤 형태의 제품이던지 재원입력을 위한 초창기 작업만 거치고 나면 프로그램 모드로 전환이 가능해 동일 제품의 재 작업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모드를 선택한 후 3분이면 작업준비가 완료되며, 제품 1장을 흘려보내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 5분 이내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전체 기계를 조작하는 컴퓨터의 경우도 자동 부팅 및 종료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기계 조작자라도 기계 전원 ON/OFF 조작과 동시에 바로 재원을 입력할 수 있으며, 별도의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전원만 끄면 컴퓨터가 모든 작업 공정을 끝마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DRAGON 1000 MC의 이 같은 특징은 다 품종 소량 생산 추세로 넘어가는 발주자들의 주문 추세에 부응하는 것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작업을 해야하는 작업장의 경우 특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에 재원을 입력하는 작업도 네트워크 망만 확보된다면 공장이 아닌 사무실, 컴퓨터에 익숙한 사무직원이 재원을 입력할 수 있으며, 발주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원도 손쉽게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생산관리자가 사무실에서 현재 작업하고 있는 제품이 무엇이며, 제품 생산에 관한 작업 시간과 총 생산량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다.

작업에 필요한 재원은 1.44MB 디스켓 1장에 대략 3만6천가지 작업내용이 입력가능하며, 컴퓨터 내장하드에 저장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다. 또한 급지부 앞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정확한 불량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 위에서부터 썬엔지니어링 공장 전경, 메인컨트롤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 곽인호 사장, 일본 썬엔지니어링 사장과 함께한 곽인호 사장

국내에서도 컴퓨터와 연계된 인공지능형 접착기 시대가 열렸다. 썬엔지니어링은 지난 7월23일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에 위치한 자사 공장에서 윈도우 2000 버전으로 컴퓨터와 연계해 작동하는 인공지능형 접착기 DRAGON 1000 MC 제품 발표회를 가진데 이어 26일에는 경기도 화성군 소재 현대중합물산에 첫

DRAGON 1000 MC 제품은 썬엔지니어링 어느 제품이나 부착이 가능해 썬엔지니어링 제품 전 기계에 대한 효율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DRAGON 1000 MC의 첫 제품을 장착한 현대중합물산은 썬엔지니어링의 오랜 고객사로 DRAGON 1000 MC는 현대중합물산에 납품되는 17번째 썬엔지니어링 제품이다.

〈이용우 기자〉